WWW.KMI.RE.KR

제 220호 · 2013년 9월 4일

해운·물류연구본부국제물류연구실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OREA MARITIME INSTITUT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중하위 GTO와 신생 터미널운영사들, 상위 4대 GTO 맹추격 중
2. COSCO, 상장폐지 방지 위해 비핵심 자산 추가 매각
3. 아시아의 석탄 수입은 지속 증가하나 공급구조는 변화될 전망
4. 북미 복합운송 화물량 증가추세 지속

물류시장동향

1. 중국 저우산 항만에 민간 LNG 연료 공급기지 건설
2. CEVA, 싱가포르에 친환경 물류센터 개장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사업동향

□ 중하위 GTO와 신생 터미널운영사들, 상위 4대 GTO 맹추격 중

○ 글로벌 터미널 운영분야에서 중하위 글로벌터미널운영사(GTO)와 신생 터미널 운영사들의 급성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이들이 상위 4대 GTO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대규모 M&A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 Drewry 연간보고서[1]에 따르면, PSA International, Hutchison Ports, APM Terminals, DP World가 2012년도 지분기준 처리물동량 및 포트폴리오 면에서 세계 4대 GTO 지위를 차지

○ 상위 4개사 이외에도 COSCO Pacific, China Shipping Terminal Development and Terminal Investment Limited(TIL)와 같은 GTO들도 빠르게 성장 중
- 특히 Drewry가 분류하는 GTO에 포함되지 않은 몇몇 신생 운영사들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강력히 추진

○ Neil Davidson씨[2]는 PS[3]와의 인터뷰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터미널 운영사로 China Merchants Holdings International, Gulftainer, Bolloré and Yildirim, SAAM Ports, GPI, Ultramar, Ports America 등을 예를 들고 이들은 선택적인 확장을 하거나 M&A를 계획 중이라고 밝힘
- 그는 또 상위 4대 GTO 지위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다른 터미널 운영사들은 상위 4개사를 추격하기 위해 터미널을 신설할 수 있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기존 자산이나 포트폴리오 인수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언급

○ Drewry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DP World와 APM Terminals는 기존 터미널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TIL과 한진은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적으로는 유로존의 부진으로 유럽과 북미 지역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북미지역 물동량 호조로 세계 컨 항만 물동량은 2017년까지 연평균 5.4% 성장할 것으로 예측

1) Drewry's Annual Review of Global Container Terminal Operators
2) Drewry 선임분석가
3) PS(Port Strategy)

< 지분기준 2012년도 세계 10대 GTO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실적 및 시장점유율 >

순위	글로벌터미널운영사(GTO)	백만TEU	시장점유율
1	PSA International	50.9	8.2%
2	Hutchison Port Holdings	44.8	7.2%
3	APM Terminals	33.7	5.4%
4	DP World	33.4	5.4%
5	COSCO Group	17.0	2.7%
6	Terminal Investment Limited (TIL)	13.5	2.2%
7	China Shipping Terminal Development	8.6	1.4%
8	Hanjin	7.8	1.3%
9	Evergreen	7.5	1.2%
10	Eurogate	6.5	1.0%

자료 : www.portstrategy.com, 2013.8.28.

이언경 전문연구원 (☎ 02-2105-2919, eklee@kmi.re.kr)

□ COSCO, 상장폐지 방지 위해 비핵심 자산 추가 매각

ㅇ 중국 국영 컨테이너 및 벌크 선사인 COSCO는 3년 연속 적자로 상하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핵심 자산을 추가 매각하기로 결정함
- COSCO는 자회사인 Cosco Qingdao와 Coscon의 지분 81%를 각각 자산운영회사인 Qingdao Management와 Shanghai Tianhongli[1]에 매각 예정
- 두 건의 매각자산은 각각 20.5억 위안(3억 3,500만 달러)과 16.7억 위안(2억 7,290만 달러)으로,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COSCO는 약 36.7억 위안(5억 9,973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 가능
- 이번 자산 매각으로 그룹의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운영자산이 보강될 것으로 기대

ㅇ 그동안 COSCO는 벌크선대의 용선 규모를 줄이는 것은 물론 현금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Cosco Logistics와 Cosco Container Industries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2013년 6월 30일 현재 COSCO의 순손실은 9억 9,000만 위안(1억 6,171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대비 79.7%나 크게 감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COSCO의 수익은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

ㅇ COSCO의 적자는 주로 드라이벌크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COSCO 관리층의 해운시황 동조적 투자에 기인한 것임[2]
- COSCO의 컨테이너 부문 적자는 15억 위안 이상인데 비해 드라이벌크선 부분의 적자는 80~100억 위안을 기록(2013.2.26.)
- 2013년 6월 30일 현재 COSCO의 드라이벌크선대 규모는 332척으로, 용선 선박은 96척
- 해운 호황기에 고액의 용선 계약을 체결한 COSCO는 해운 불황기에도 고액의 용선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그룹 전체의 거액 손실 유발요인으로 작용

ㅇ 올해 하반기에 COSCO의 드라이벌크 선대 규모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드라이벌크 분야의 손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임
- 2013년 6월 30일 현재 COSCO의 용선 선박 96척 중 26~30척은 수요에 의해 임시로 용선한 것이며, 용선기간이 1년 이상인 선박 중 12척은 올해 연말 기간이 만료될 예정
- 이외 9척은 노후선으로 연내에 해체될 예정

자료 : finance.qq.com, 2013.2.26/ www.tradewinsnews.com, 2013.8.29/ finance.caixin.com, 2013.8.31.

김홍매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1) Qingdao Management와 Shanghai Tianhongli는 모기업인 COSCO가 간접적으로 전액 소유
2) COSCO 관리층은 2008년 BDI지수가 고점인 상황에서 자가선대, 용선 및 해운운임선물시장(FFA)에 대규모로 투자

□ 아시아의 석탄 수입은 지속 증가하나 공급구조는 변화될 전망

○ 세계 석탄교역에서 아시아가 수입하는 원료탄 및 연료탄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로 나타남
- 아시아 석탄 수입은 국제 석탄교역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성장세도 매우 높은 실정
- 2007년 3천만 톤이었던 아시아의 석탄 수입은 2013년 6천 7백만 톤으로 증가
- 특히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중국과 인도의 석탄수입 증가가 세계 석탄교역량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함

○ 아시아 석탄수입의 주요 공급원은 인도네시아와 호주로, 2013년 초 전체 아시아 수입물량의 91%를 차지하였음
- 아시아 석탄수입 물량 중 2007년에는 호주가 57%, 인도네시아가 40%를 공급하였으나 2010년 이후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제치고 가장 큰 아시아 석탄 공급원으로 자리 잡아 현재는 50% 이상을 인도네시아가 공급
- 인도네시아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석탄 공급 급증은 주로 해당 지역의 높은 석탄수요에 기인하지만 일부는 저품질 석탄도 기꺼이 수입하고자 하는 중국과 인도 때문
- 인도네시아는 저품질 연료탄의 수요 증가에 맞춰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고, 2007년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아로의 운송은 47%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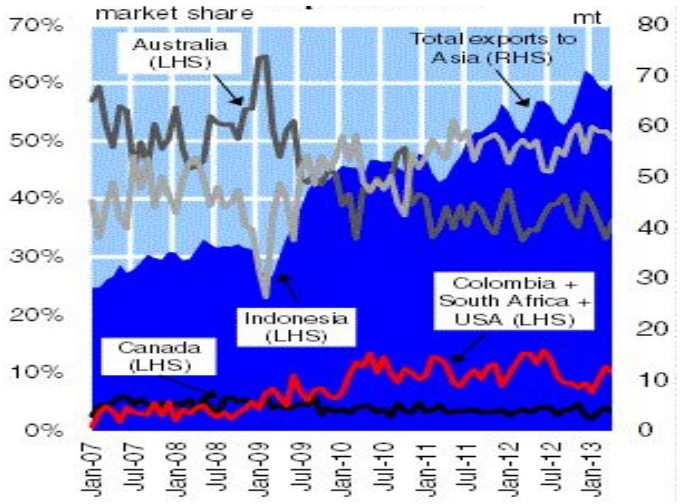
○ 대서양 연안 국가의 석탄공급도 증가 추세임
-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 대서양 연안 국가의 아시아에 대한 석탄 공급도 크게 증가하여 현재 아시아 석탄수입의 약 10%에 달함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주로 유럽으로 석탄을 수출해 왔으나 2008~2009년 유럽의 석탄수요 감소 및 아시아의 수요 증가에 따라 아시아로의 수출을 크게 확대
- 미국의 경우 셰일가스 사용 증가 등의 이유로 자국 내 발전용 연료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해외 수출을 증대
- 미국 원료탄 수출 역시 현재 증가추세에 있고, 향후 서부연안에 위치한 항만 인프라 개발에 따라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이처럼 향후 아시아의 석탄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공급구조는 다소 변화 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이후로도 아시아 석탄 수입의 주요 공급처로 남겠지만 대서양 연안 국가의 석탄공급 증가, 저품질 석탄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시장 점유율은 변화 될 듯

ㅇ 이러한 변화는 향후 세계 석탄교역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이후 대서양 연안국가로부터 아시아로의 장거리 석탄운송의 증가, 인도네시아와 인도간 석탄교역 증가로 아시아의 석탄수입 톤-마일은 99%나 증가
- 이로 인해 유럽의 석탄수입 톤-마일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탄교역 톤-마일은 2007년 이후 42% 증가
- 결과적으로 아시아의 석탄수입 증가 및 공급구조 변화에 따른 세계 석탄교역 톤-마일 증가는 국제 석탄운송 수요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장기적으로 세계 석탄교역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아시아 석탄수입 추이 >



자료 : www.clarksons.net

자료 : www.clarksons.net, 2013.8.21.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 북미 복합운송 화물량 증가추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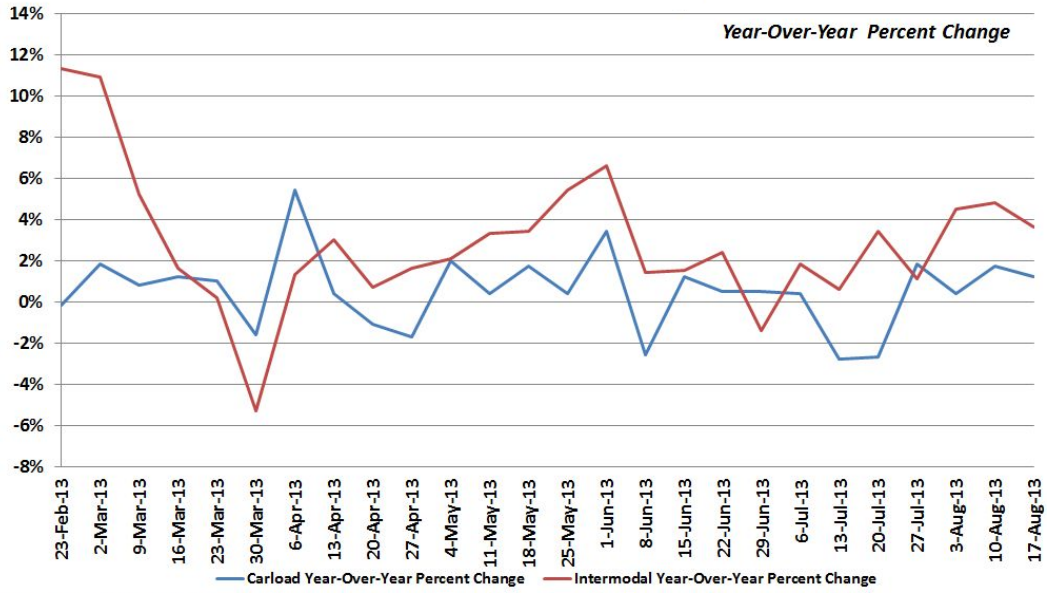
○ 미국철도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는 8월 3째 주의 북미 복합운송 화물량(trailer/container)이 전년 동기 대비 3.6%[1], 전주 대비로는 0.7% 증가한 324,139units에 달했다고 발표

- 미국의 복합운송 화물량은 8월 3째 주에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256,458units로 마감
- 캐나다의 복합운송 화물량은 8월 3째 주에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56,541units로 마감
- 그러나 멕시코의 복합운송 화물량은 8월 3째 주에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한 11,140units로 마감
- 이에 따라 북미 복합운송 화물량은 2013년 초부터 8월 3째 주까지 10,065,774units이며,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 한편 8월 3째 주의 북미 총 carload는 390,103units이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 전주 대비 2.5% 증가

- 8월 3째 주의 미국 carload는 295,901units이며, 전년 동기 대비 0.5%, 전주 대비 2.5% 증가
- 8월 3째 주의 캐나다 carload는 78,160units이며, 전년 동기 대비 1.7%, 전주 대비 2.9% 증가
- 8월 3째 주의 멕시코 carload는 16,042units임
- 그러나 2013년 초부터 8월 3째 주까지 북미의 총 carload는 12,258,601units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

< North American Carload and Intermodal Volumes >



Source: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자료 : www.joc.com, 2013.8.22.

자료 : www.joc.com, 2013.8.22.

최은혜 연구원 (☎ 02-2105-2838, choeeunhye@kmi.re.kr)

1) 북미 복합운송 화물량은 7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본 수치는 최근 46주 중 가장 높은 수치임

물류시장동향

□ 중국 저우산 항만에 민간 LNG 연료 공급기지 건설

○ 저우산 항만에 첫 민간 LNG 연료 공급기지가 건설 될 예정
- 동 기지는 201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중국 에너지 기업인 ENN 에너지 주식회사가 건설
- 총 7억 7,570만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3백만 톤의 저장능력을 갖춤
- 저우산 시정부는 닝보항과 합병한 저우산 항만을 동북아의 LNG허브로 육성할 계획

○ 한편, SinoShip 뉴스에 따르면 ENN이 최근 캐나다 회사에 연간 2백만 톤의 LNG를 공급하기로 장기 계약 체결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3.8.20.

전혜경 연구원 (☎ 02-2105-2982, saeii@kmi.re.kr)

□ CEVA, 싱가포르에 친환경 물류센터 개장

○ CEVA가 싱가포르 Tampines 물류단지에 42,000㎡규모의 물류센터를 개장
- 싱가포르는 배후 물류 네트워크가 우수하고 국제 수송도 용이하기 때문에 CEVA의 전략적 물류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 CEVA는 규모의 경제 달성과 효율성 높은 물류센터 건립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Rolls royce, Pearson, Pigeon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싱가포르 물류센터는 CEVA가 강점을 가진 항공 산업관련 물류를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함으로써 인접지역에 위치해 있는 항공 산업계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제품 공급도 가능할 전망
- 한편 CEVA의 싱가포르 물류센터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받은 친환경 물류 시설로, 3PL 기업 중 최초로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여 친환경 기술을 이용한 진보된 물류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

자료 : www.sdcexec.com, 2013.8.27.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센터(KMI) 문의	• 해외투자사업 정보 및 해외투자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등 해외진출 관심기업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로 문의
사업신청서 작성	• 해외투자사업 관련 구체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신청서 작성
사업추진계획 협의	• 기업의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와 사전 지원사항 협의
예비조사 실시	• 사업가능성 확인을 위한 현지 경제무역 현황 및 물동량, O/D, 시설 등 해운물류현황 조사 • 현지 조사(Fact Finding) 실시
공동추진 → 설명회 개최	• 기업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초기 관심기업 우선지원
협의체 구성	• 관심기업들의 논의를 통한 협의체(컨소시엄) 구성
단독추진 → 사업추진계획 확정	• 사업추진방향, 전략, 정부 지원사항 등 협의
사업타당성 조사(FS)	• 물동량 예측, 투자비, 자금조달 계획 등
사업추진 및 투자	• 투자재원마련 등 사업추진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